

# 與 “선관위 사무총장 거취 고민해야”...국힘 “노태악 사퇴”

## 사상 초유 투표지 부족 사태

여야 “선거 관리 부실” 한목소리 질타  
국힘, 서울 당선 뒤 재선거 요구 안해

여야는 6·3 지방선거 개표가 종료된 4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물겠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에 차질이 발생하자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주장했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고는, 막상 유리한 국면으로 개표가 진행되니 그 문제를 슬쩍 흐려버린다”며 “이런 저급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국가 헌법기관이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 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라며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즉각 가동해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점의 허구 없이 밝힌 뒤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 위원장과 허 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고발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후보가 막판 역전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우리 당의 전통적 우세 지역인 강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관위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서울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 최종 승리를 확정 지은 이후 재선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일이 하루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현대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진상규명위 설치...책임 따질 것”

“잠실 7동 제2투표지 시위대 설득 중  
투표함 개함해야 당선자 결정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에게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 투표소의 투표용지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늘 새벽 개최된 전체위원회에서 지선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일부 시민들의 시위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함을 개함해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 결정이 가능하고, 주변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잠정 투표율 61%...여야 결집으로 치솟아

###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전남 65.7% 1위...광주 54.3% 꼴찌  
제1회 地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6·3 지방선거 투표율이 61.0%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 유권자 4천46만9천908명 가운데 2천72만9천586명이 지방선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23.51%)와 거소투표 결과도 반영됐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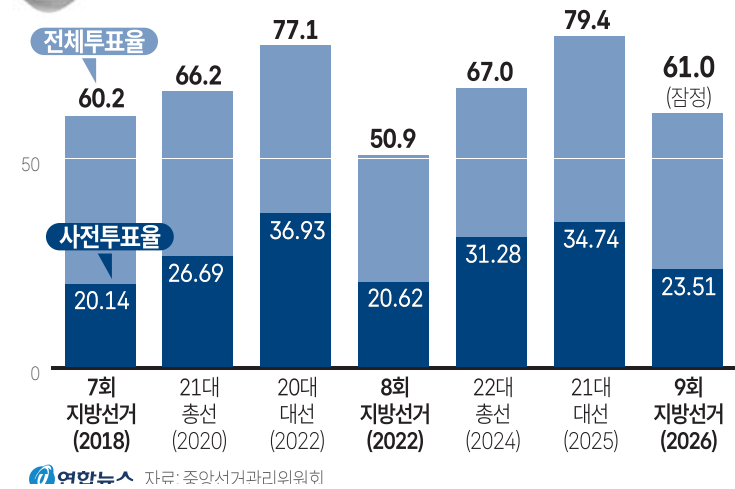
지방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68.4%다.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인 50.9%와 비교하면 10.1%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5.7%)이고 강원(64.5%), 경남(64.4%), 대구·울산(64.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54.3%를 기록한 광주다. 이어 제주(56.4%), 인천(58.2%), 경기(58.4%)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63.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

### 6·3 지방선거 최근 선거 투표율



대한 중간 평가와 견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거 초반부터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 만큼 투표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 무당층·부동층이 투표를 포기해 비교적 저조한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뒤집힌 것이다.

사전투표율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본투표율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끌어 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진영의 결집이 더 우세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QR 코드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룸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있음)식당,사육,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땅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가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사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교환]**  
상가 모텔 주택 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